

한은 총재의 경고 “제조업 경쟁력 제고는 생존의 문제”

이주열, 기업인과 경제동향 간담회 제조업-서비스업 간 경계 무너져 새 경쟁구도 열려... 재도약 기회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 것은 이제 우리 경제의 생존의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열 총재는 19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 동향 간담회에서 “제조업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광현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최형기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임승윤 한국

석유화학협회 상근부회장,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무, 장윤중 포스코경영연구원장, 염용섭 SK경제경영연구소장 등 디스플레이, 기계,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총재는 “최근 제조업에서 스마트 팩토리, 정보기술(IT) 융합, 글로벌 가치사슬, 리쇼어링 등 새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며 “이는 제조업을 둘러싼 구조적 변화가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 내 업종 간,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전통적인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동종 기업뿐 아니라 과거 경쟁 관계가 아니

었던 여타 업종 또는 서비스업 영위 기업과도 새로이 경쟁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과정에서 생산기지 역할을 했던 아시아 주요국의 내수 비중이 커지고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국제분업 유인이 약화했다”며 “제조업을 둘러싼 글로벌 가치사슬이 약화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독일,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제조업 경쟁환경 변화는 우리나라에 우호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절한 대응전략을 통해 우리 제조업이 재도약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오른쪽 두번째)가 19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KB금융, 'KB 골드앤와이즈 송도센트럴파크' WM복합점포 신설

KB금융그룹은 지난 18일 인천 송도에 'KB 골드앤와이즈(GOLD&WISE) 송도센트럴파크' 은행·증권 자산관리(WM) 복합점포를 신규 오픈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KB금융은 은행·증권 원스톱(One-Stop)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WM복합점포를 총 66개로 확대했다. 지난 18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KB국민은행-KB증권 복합점포 개점행사에서 정경영 KB국민은행 인천지역영업그룹 대표(왼쪽 여섯번째), 이채규 KB증권 WM사업본부장(오른쪽 세번째) 및 임직원, 고객들이 축하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KB금융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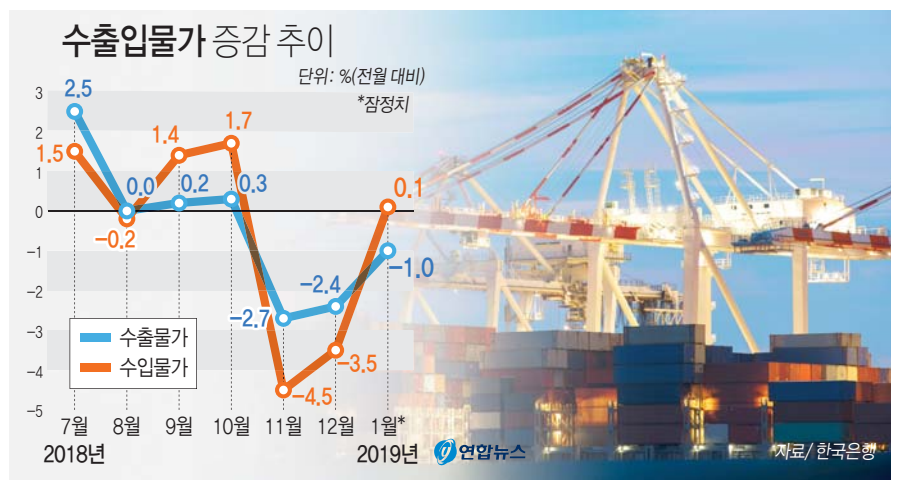
반도체값 쇼크... 수출물가 석달째 '내리막'

수출물가 82.95, 27개월 만에 최저 디램수출 가격 6개월 연속 내림세 반도체값 하락·원화가치 상승 영향

지난달 수출물가지수가 2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디램(DRAM) 등 전기 및 전자기기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다. 반면 수입물가지수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3개월 만에 반등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19년 1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1월 수출물가지수는 82.95로 전월(83.80) 대비 1.0% 하락하며 3개월 연속 내렸다. 지난 2016년 10월 80.68을 기록한 이후로는 27개월 만에 최저치다.

수출물가가 하락한 원인은 반도체 가격의 하락 때문이다. 지난달 디램 수출가격은 전월 대비 14.9% 하락했다. 지난 2018년 8월(-21.3%) 이후 6개월 연속 내림세다. 이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동안 내린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다.



플래시메모리(-5.3%), TV용 LCD(-2.6%) 등도 내리면서 전기 및 전자기기는 3.3% 하락했다. 이는 2016년 4월(-3.8%)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전기 및 전자기기, 제1차 금속제품(-0.4%) 등이 하락하면서 지난달 공산품 가격은 1.0% 내렸다.

한은 관계자는 “1월 수출물가는 전기 및 전자기기, 제1차 금속제품 등의 가격 하락 및 원화가치 상승 영향을 크게 받았

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원·달러 평균환율은 지난해 12월 1122.90에서 지난달 1122.00으로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84.98로 전월(84.89) 대비 0.1% 상승했다. 수입물가는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에 반등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수입물가도 올랐다. 1월 월평균 두바이유가는 배럴당 59.09달러로 전월(57.32달러) 대비 3.1% 올랐다. /김희주 기자

시세비 85% 이하... 사회주택 2000가구

국토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추진 LH 500가구·서울시 1500가구 이상

시세 대비 85% 이하의 낮은 임대료를 받는 사회주택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 이상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주택 공급계획 등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 거주기간의 보장,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임대주택이다. 기존 공공 및 민간임대와 달리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된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사회주택 활성화 의지를 밝혔다.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유 부지를 활용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또 사회주택협회, 서울시 및 LH, HUG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주택 활성화 토대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국토부는 우선 지자체 중심의 지역밀착, 수요 맞춤형으로 오는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 이상 사회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LH 500가구, 서울시 1500가구 이상 등이다.

아울러 토지임대나 매입임대주택 운영

위탁 등 기존 사업모델 외에 지역·환경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과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주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기준을 개선한다. 입주자격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 전체 세대의 40% 이상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임대기간은 15년 이상, 전체 세대 임대료는 시세의 85% 이하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탄력 적용토록 한다.

국토부는 또 사회적 가치 판단과 컨설팅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에 근거한 공동체 형성과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공동체 코디네이터로 양성·위촉해 입주 초기부터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HUG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기능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원 위주에서 컨설팅·교육·홍보 등 종합 지원으로 강화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주체는 기금지원은 물론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성 분석, 컨설팅 및 금융관련 교육 등 사회주택 건설과 유지에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사회주택 이해도 증진 및 공감대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주체 대상으로 사회주택 활성화 내용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주 52시간 근무제', 일자리 年 40만개 감소

파이터치리 연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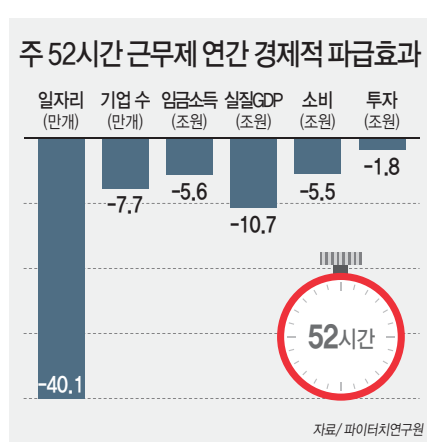
노동 감소→임금 상승→일자리 감소 숙련공 일자리, 비숙련공 比 1.4배 ↓

'주 52시간 근무제'로 일자리가 연간 40만1000개 사라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총 임금소득이 약 5조6000억원,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약 10조 7000억원 줄어든 것이라 추산했다. 아울러 투자는 약 1조8000억원, 기업 수는 약 7만7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파이터치리연구원은 19일 내놓은 '주 52시간 근무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자리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노동 공급도 덩달아 감소하고 이에 따라 단위 임금이 상승해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총 임금소득 감소 역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따라오는 결과이고, 일자리 축소는 생산을 감소시키고 결국 GDP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일지리는 숙련공(-23만5000개), 비숙련공(-16만6000개) 할 것 없이 모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연구위원은 “연구 결과 근로시간 단축시 숙련공 일자리가 23만개 이상 사라질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숙련공은 부족한 근로시간을 단기간에 신규 고용으로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숙련공의 일자리 감소는 비숙련공의 약 1.4배에 달한다.

비숙련공의 일자리는 자동화가 대신한

다. 반복적 노동을 하는 비숙련공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한 결과 자동화가 0.1% 축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에선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근로자들이 직업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각종 초과수당 등으로 인해 임금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다만 임금소득 증가가 직업만족도를 상승시키지만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만족도 상승분의 크기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연구위원은 “현 경제상황과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원천적 측면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다면 제도의 시행 연기 또는 폐기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민약 주 52시간 근무제 재검토가 어렵다면 해외 선진국과 같이 탄력 근무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승호 기자 bada@